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9 주차 (롬 6:12~6:23)

(2016년 1월 7일 - 2018년 1월 13일)

(제5권 19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1 월 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주일)

오늘의 본문 (롬 6:12~13)

- ¹² Μὴ οὖν βασιλευέτω ἡ ἁμαρτία ἐν τῷ θνητῷ ὑμῶν σώματι
(그러므로 죄가 너의 사탕의 몸에 의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εἰς τὸ ὑπακούει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αὐτοῦ, (그 결과 너의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 ¹³ μὴ δὲ παριστάνετε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ἀδικίας τῇ ἁμαρτίᾳ,
(또한 당신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편에 세우지 말고)
ἀλλὰ παραστήσατε ἑαυτοὺς τῷ θεῷ (당신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편에 세워라)
ὡσεὶ ἐκ νεκρῶν ζῶντας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καὶ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δικαιοσύνης τῷ θεῷ. (당신들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세워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성경적인 죄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죄의 유무를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서 있는 상태가 죄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이 정해 놓은 윤리나 도덕, 각각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행위라는 기준은 인간들 스스로가 찾아낸 것이다. 사실 인간의 행위는 죄를 인식하고 감지하는 요인에 불과할 뿐이지 행위 그 자체가 곧 죄는 아닌 데 말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개념은 어찌보면 매우 단순하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의를 얻는 방법으로 택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된다. 앞서 바울은 로마서 3 장에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남은 관점은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의를 획득해서 의인이 되느냐 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와 의가 극명하게 갈린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한다. 죄란 의를 자기 힘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모든 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의로움의 원천을 인간에게 두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의를 획득하려는 일체의 행위들이 죄다. 성경에 따르면 의로움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시도를 죄라고 한다. 결국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보다 근본적인 것에 관련돼 있다.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예외없이 일탈을 하게 되어 있다. 마음으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범하든 상관없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죄인의 속성상 죄를 생산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존재 자체가 불가피하게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죄를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일종의 영역이나 권세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 결과는 죄의 열매일 뿐이다. 만약 세상에서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의 또는 선이라 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죄 또는 악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죄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인식을 바탕으로 12 절의 명령을 다시 한 번 해석해 보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의 사망의 몸에 의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결과 당신의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12 절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부정적 의미라는 말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일탈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술에 빠져 산다든지, 도박 중독에 걸린다든지, 여하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들 말이다. 이런 행동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죄요 악이다. 바울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성도들이 착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함을 입증하려는 노력 말이다. 주일이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장 중에도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소득의 십일조를 한 푼도 어김없이 드리고, 교회 일은 맡기는 대로 봉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서 이들은 신실한 신앙인들로 칭찬받는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도 보이지 않는 의도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일종의 부채 의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 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가십하거나 정죄하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되 타인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관대함을 보인다. 이런 분들이 하는 예배, 헌금, 기도, 선한 행위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에 감사함에 넘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 6:1).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거지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거지에겐 별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든 은밀히 행하든 거지에게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다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행위 자체로는 사회에서 권장할 만한 선한 행동이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로마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피상적인 권면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따른 행동을 해냄으로써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욕망에 굴복되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흔히들 죄악이라고 여기는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든 세상의 도덕과 법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는 말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조차도 욕망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 죄가 될까요? 당신은 그런 욕망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의 도구가 되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2~13)

- ¹² Μὴ οὖν βασιλευέτω ἡ ἁμαρτία ἐν τῷ θνητῷ ὑμῶν σώματι
(그러므로 죄가 너의 사망의 몸에 의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εἰς τὸ ὑπακούει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αὐτοῦ, (그 결과 너의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 ¹³ μὴδὲ παριστάνετε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ἀδικίας τῇ ἁμαρτίᾳ,
(또한 당신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편에 세우지 말고)
ἀλλὰ παραστήσατε ἑαυτοὺς τῷ θεῷ (당신들 스스로를 하나님 편에 세워라)
ὡσεὶ ἐκ νεκρῶν ζῶντας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καὶ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δικαιοσύνης τῷ θεῷ. (당신들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세워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이 정의한 죄가 성경의 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정의한 의도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의와 다르다. 13 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편에 세우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세우라고 명령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종의 도덕 명령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의 편에 세우는 것과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항상 선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의롭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전혀 다를 때도 많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실 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을 따르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유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순전히 하나님 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독자들은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긴다.

아브람을 예로 들어 보자. 아브람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아브람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기 전부터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유로 아브람을 선택하셨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과연 아브람이 사래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만약 이스마엘이 둘째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내치도록 허락하신 것도 정말 옳은 일일까? 만약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다가 결국 아브람의 집을 떠날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하갈이 첩이 되는 과정에서 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복잡한 가정사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아브람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람은 아내 사래의 아리따움이 마음에 걸렸다. 아름다운 사래를 차지하기 위해 그곳 남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을 먹었다. 마침내 아브람은 아내를 설득하여 부인이 아니라 누이로 속이기로 한다. 어느 날, 마침내 아브람이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바로에게 소개했고 바로는 사래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일에 개

입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에게 진노하셨고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는 오히려 아브람에게 사기를 당한 억울한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람을 편드셨다. 바로 입장에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바로만 혼내신 것이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되는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 40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갈 때는 또 어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셨다. 과연 그 명령은 타당한 것인가? 정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처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로 죄 지은 자들이었을까?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던 말인가? 그런데 가나안 정복기를 읽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죽어간 가나안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집중한다. 어떤 이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가나안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한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의로움인가? 우선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의는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회적 합의다. 그렇기에 시대나 장소에 따라 의의 기준이 다 다르다. 물론 그런 의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이를 어기면 그 사회에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의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으심이 분명하다. 사실 의로움을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하나님의 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늘 동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실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버리라는 말이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다. 물론 인간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렇기에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산 건 아니다.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좀 더 삶의 기준을 높이라고 명령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낮게 살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단순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살아가면서 공공의 법과 도덕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선한 행동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수준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으라고 명령하신다. 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에만 의존하라는 말이다. 어찌 보면 의의 도구가 되는 길은 의외로 쉽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4)

¹⁴ ἁμαρτία γὰρ ὑμῶν οὐ κυριεύσει· (당신들의 죄가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οὐ γὰρ ἐστε ὑπὸ νόμον ἀλλ' ὑπὸ χάριν.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죄가 당신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위대한 선언은 단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우리가 더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개과천선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을 세상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자기 위주로 세상사를 판단한다.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훨씬 귀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기왕이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성을 얻으려는 생각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은 어떤가?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을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등장하면 여지없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속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고는 비난의 행렬에 동참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우연히 세리를 발견하고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죄로부터 탈출하려는 몸부림에서 해방된다는 말이다. 먼저 죄에 사로 잡힌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를 살펴 보자.

첫 번째는 일단 죄를 지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한다. 누군들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떠벌이고 다니겠는가? 이는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인간의 숙명적인 고질병이다. 일종의 유전병인 셈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한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스스로 눈이 밝아져 벗은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는 부랴부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치부를 가렸다. 어떻게든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겠다는 것,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 아담이 날이 서늘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는 걸 알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 사이로 숨는다. 숨는다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는 계속해서 숨고 은폐하기 바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숨고 은폐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상황 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그랬다. 당시 선지자 사무엘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²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³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1-3).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내린 명령의 골자는 이렇다. 아말렉 족속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일 것, 그리고 소, 양, 약대, 나귀를 포함한 모든 가축들도 죽이라고 하셨다. 그 명령에 따라 사울왕은 전쟁에 나갔고 당당히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더 살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 그를 질책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 하였나이다 (삼상 15:15).

그는 백성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다. 죄를 지으면 숨고, 핑계를 대고, 그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어떠한 핑곤했던 것도 찾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한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구원이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더 이상 죄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무한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늘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하지만 은혜는 율법의 엄매임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은혜를 선물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입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5~18)

- 15 Τι οὖν; (그러므로 무엇을 하겠는가?)
ἀμαρτήσωμεν,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인가?)
ὅτι οὐκ ἐσμέν ὑπὸ νόμον ἀλλ' ὑπὸ χάρι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μὴ γένοιο.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 16 οὐκ οἴδατε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가?)
ὅτι ὃ παριστάνετε ἑαυτοὺς δούλους εἰς ὑπακοήν, (당신들이 당신 스스로를 종으로 세워 순종하면)
δοῦλοί ἐστε ᾧ ὑπακούετε, (당신들은 당신들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ἢ τοι ἁμαρτίας εἰς θάνατον ἢ ὑπακοῆς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또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든지)
- 17 χάρις δὲ τῷ θεῷ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ὅτι ἦτε δούλοι τῆς ἁμαρτίας (너희가 한때 죄의 종이였다)
ὑπηκούσατε δὲ ἐκ καρδίας (그러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였다)
εἰς ὃν παρεδόθητε τύπον διδασχῆς, (너희가 가르침의 본을 전해 받은 그것에)
- 18 ἐλευθερωθέντες δὲ ἀπὸ τῆς ἁμαρτίας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ἐδουλώθητε τῇ δικαιοσύνῃ. (의에게 종이 되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로마서 6 장에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다. 그는 6 장 1 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넘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한다.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답할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율법을 모두 지켜내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인간들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할 때에만 간음이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마음 속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죄의 유무를 판단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행위의 결과도 당연히 죄지만 그 의도도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²¹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²⁷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⁸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5:21-28).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살인죄다. 그런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형제를 미련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간음한 것뿐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사람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예

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 누가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누가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정도 기준이라면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다. 바울은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질문의 형식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든지, 어떤 선택을 하건 당신들은 당신들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요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이다. 죄인가 아니면 의인가? 속박하는 율법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둘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속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켈빈주의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사도는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의 중,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전 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죄에게 종노릇을 한단 말인가?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의를 값 없이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한 사도 바울의 선언은 진리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그건 우리 각자의 문제일 뿐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업적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모두가 100점을 맞아야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하지만 누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90점을 맞았고 어떤 이는 매번 죄를 지어 0점을 맞았다 치자. 90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점수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의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의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 의에 매어 사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이다. 대신 다른 것에 속박되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란?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5~19)

¹⁹ Ἀνθρώπων λέγω(내가 사람[의 방법]을 말한다)

διὰ τὴν ἀσθένειαν τῆς σαρκὸς ὑμῶν. (너희 육신의 무력함 때문에)

ὥσπερ γὰρ παρεστήσατε τὰ μέλη ὑμῶν δοῦλα τῇ ἀκαθαρσίᾳ καὶ τῇ ἀνομίᾳ εἰς τὴν ἀνομίαν,
(너희가 너희 지체를 종으로 부정과 불법 편에 세워 불법에 이른 것같이)

οὕτως νῦν παραστήσατε τὰ μέλη ὑμῶν δοῦλα τῇ δικαιοσύνῃ εἰς ἁγιασμόν.
(지금은 너희 지체를 종으로 의의 편에 세워 거룩함에 이르라)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말한다고 한다. 사람의 방법이란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본능적으로 행해오던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가 이르기 전 인간들은 스스로를 죄의 종이 되어 부정과 불법의 편에 섰고 그 결과는 당연히 불법이다. 성경은 그 원인을 육신의 연약함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육신의 연약함은 무엇이고, 부정과 불법 편에 종으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연약함이란 의지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지가 강하면 강한대로, 약하면 약한대로 인간들은 누구나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선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율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은 일이나 어떤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접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 무너지고 불타기 시작했다. 그곳에 입주해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빌딩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쌍둥이 빌딩 중 테러범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비행기 충돌을 당한 남쪽 빌딩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북쪽 빌딩은 충돌후 100여분이 지나자 속절없이 붕괴되었다. 테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쓴채 황망하게 도망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빌딩을 향해 열을 지어 달려 들어가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뉴욕시 소방관들이었다. 남들은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오는 그곳을 향해 그들은 왜 돌진해 들어간 걸까? 그들은 에게는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다. 모든 소방관들이 그렇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뛰어드는 것은 웬만한 선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당시 구조 작업을 위해 투입되었던 소방관들 중 343명이 순직했다. 그날 테러로 미쳐 빌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시민들은 모두 2,192명이라 한다. 그들은 테러를 당한 그 빌딩 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죽었지만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빌딩 밖에 있다가 무너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단지 소방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 모두는 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 마음에 선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없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그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 가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바울이 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 아닌 걸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들조차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든 예외없이 다 그렇다는 말이다.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리는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다. 웬만한 의지를 지니지 않으면 한끼 굶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평생을 그렇게 해 왔다. 소득의 십일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일조는 단지 소득의 10%가 아니라 23% 정도였다. 그렇다고 남들을 속이거나 부당 착취도 한 적 없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행

위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를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입증하는 도구로 생각해 왔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불의와 부정의 편에 서는 것이다.

뉴욕 테러 당시 순직한 소방관들은 정말 사심없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의인이 되고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의를 찾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 의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길이다. 바리새인이 의의 종이 되는 길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난 후부터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도덕적, 율법적으로 이전보다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엄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그것으로 의의 기준을 삼아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부정과 불의에 중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복음의 진리에 이르면 이룰수록 쌓였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은 더 빛이 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 세계에서 의로움,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의문은 증폭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등등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건 복음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공활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타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공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천국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각자 엄격한 기준을 품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인을 배려하고 품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활이나 자비가 있거든²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³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 (빌 2:1-5).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점에서 연약한 자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부정의 편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런 행동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제 당신은 의의 편에 섰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에 대한 자유자들...(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6:20~21)

- ²⁰ ὅτε γὰρ δούλοι ἦτε τῆς ἁμαρτίας, (왜냐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ἐλεύθεροι ἦτε τῆ δικαιοσύνη.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자였다)
- ²¹ τίνα οὖν καρπὸν εἶχετε τότε; (그런데 당시에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ἐπ' οἷς νῦν ἐπαισχύνεσθε, (지금은 너희가 그 열매를 부끄러워한다)
τὸ γὰρ τέλος ἐκείνων θάνατος. (왜냐하면 그것의 최종 결과는 사망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제 독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은 모두 죄인이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성인이라 칭송하며 위인전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 없으면 그는 죄인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 서도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이며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다. 그들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는 의롭고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들 중에 마하트마 간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그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폭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는 인간의 최후 승리는 비폭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는 밖으로는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육체적 욕망을 극도로 제한했다. 조금이라도 유혹을 느끼면 금식을 통해 스스로 죄를 씻어내려 애썼다. 그는 인도 최고 명문가 출신이다. 그의 나이 일곱 살 때 그의 아버지는 라지코트의 수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았을 뿐 아니라 카스트 제도가 인도를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했으며 불가촉 천민의 해방에도 앞장섰다. 또한 거짓과 기만은 철저히 증오하고 오직 진실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간디에 대한 미담은 해도해도 끝이 없을 정도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힌두교 신자였고 어머니의 신앙심은 그대로 간디에게도 전해져 그는 고지식할 정도로 힌두교의 교리에 충실했다. 이런 그의 정직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은 그의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힌두교인이라는 사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솔직히 말해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도 선을 행해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관용이고 아량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여지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몰차 보이기에까지 한다.

날 때부터 앓은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서 걸인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무언가 구걸을 하려 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말 한 마디로 그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 앓은뱅이는 평생 자신을 움아편 장애에서 벗어났다. 그는 사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세포 하나 하나는 되살아났고 근육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흥분된 나머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평생시 그를 앓은뱅이 거지로 알아

왔던 사람들은 그들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겨지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앓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불치의 장애를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가 그런 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믿었다. 그가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셔야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것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행 3:16).

베드로는 그의 회복을 죽은 자의 부활과 연결지어 메시지를 전했다.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다고 선포한 바 있다 (롬 4:25참조).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튿날 사도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 등 모든 유대 지도자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문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심문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⁹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¹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¹¹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¹²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9-12).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오직 예수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거나 나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간디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은 무엇을 해도 의에 달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 무엇을 해도 죄인일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다.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 당신은 무엇으로 의를 평가하고 있는가? 혹여 행위를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여전히 죄의 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까?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6:22~23)

²²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ἐλευθερωθέντες ἀπὸ τῆς ἁμαρτίας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δουλωθέντες δὲ τῷ θεῷ (하나님을 향하여 종이 되었기 때문에)

ἔχετε τὸν καρπὸν ὑμῶν εἰς ἁγιασμόν,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니고 있다 [맺고 있다])

τὸ δὲ τέλος ζωῆν αἰώνιον. (그리고 그것의 최종 결과는 영생이다)

²³ τὰ γὰρ ὄψωνία τῆς ἁμαρτίας θάνατος,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τὸ δὲ χάρισμα τοῦ θεοῦ ζωὴ αἰώνιο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ῷ κυρίῳ ἡμῶν.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특유의 논리로 설명했다. 죄는 인간의 행위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다. 행위와 그에 대한 판단은 죄의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로 죄라 할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 죄와 의를 드러낼 수 없다. 죄인과 의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가 어디에 속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의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자기 의로 내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다. 매일같이 토색하고 서민들에게 등골이 휘도록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원망이 자자했던 세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 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들, 공동체의 도덕적 요구를 모두 충족해서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죄와 의의 영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경계선이다.

당시 로마 교회는 크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두 그룹은 죄와 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의지해 왔던 율법이 있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대신 마음의 법인 양심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했다. 율법이든 양심이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선을 깨닫게 된다. 율법과 양심은 그들의 행동 지침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또는 양심의 법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얽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누니 데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 숙어를 여섯 번 사용했다. 그 중에 네 번을 죄에서 의로의 반전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다 (3:31, 6:22, 7:6, 7:17). 이 중 3장과 6장 내용을 살펴보자. 3장에서는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율법과 마음의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는 죄만 나올 뿐이라고 설명한다.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는 율법과 양심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죄인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니 데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선언에 앞서 그 동안 이어 온 모든 설명들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한다.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6장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양심이나 율법에 따라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이다.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한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법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그런 선악 기준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누니 데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위대한 선언을 한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위대한 선언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ἐλευθερωθέντες; 에레우데로덴테스)라는 동사 (분사)에 사용된 헬라이어 문법이 매우 흥미롭다. 먼저 이 동사는 수동태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우리의 행위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는다. 얼마나 다행인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그를 잡아 온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른 어떤 법,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판단된다. 둘째 ‘해방되었기 때문에’라는 동사의 시제는 에오리스트 (Aorist)라는 헬라이어 특유의 시제가 사용되었는데 이 시제는 과거 어느 순간에 그 행위가 완료된 것을 뜻한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이다. 과거 어느 순간에 해방되었고 지금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죄로부터 일시적으로 가식방을 해놓고 다시 죄를 지으면 율법의 굴레, 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해방은 단번에 그리고 항구적이다. 셋째, 이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로 쓰였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선과 악을 지배하는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에는 하나님 편에 속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δουλωθέντες; 둘로덴테스)도 위와 동일한 문법이 쓰였다. 수동태이고 에오리스트 시제를 사용했으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갖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러한 주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¹⁰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¹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10:10,14).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려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한 번 거룩하게 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죄 아래 있었고, 우리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분께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룩이고 영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건 영생이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 성경은 당신의 모습이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갖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